

한미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과정 차이분석

-식품소비를 중심으로-

유 현 정 (충북대학교 주거환경소비자학과 교수)

I. 서론

최근 과자와 유기농 냉동채소에서 죽은 동물의 일부분이 발견되고, 참치캔에서는 녹슨 칼조각이 발견되는 등 식품안전에 포함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소비자안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에 있어서도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은 소비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재화인 동시에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므로 공정과정이 다른 재화들에 비해 위생적이고 청결해야 한다. 그러나 1989년 우지라면을 비롯하여 1995년 속칭 '고름우유', 1996년 산분해 간장 발암물질, 1997년 미국산 수입쇠고기 대장균 O-157 검출, 1998년 포르말린 통조림, 1999년 다이옥신 파동, 2000년 중국산 납꽃계, 2004년 불량만두(속칭 '쓰레기만두'), 2005년 장어 말라카이드 그린 검출 사건과 김치에서 납, 기생충 알이 검출되는 사건 등(이건호, 2007; 최성락, 2006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 안전은 일반적으로 위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위험의 제거정도는 안전성의 정도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위험의 완전한 제거, 즉 100% 안전한 상태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기 위한(즉,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은 계층과 라이프스타일, 가치에 따라 서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와 민족, 문화의 차이는 안전에 대한 의식 및 추구에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들이 식품 소비 시 안전추구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국가 간 식품안전에 관련된 제반문제를 다루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비자안전

현대 사회는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먹는 음식, 마시는 물, 들이마시는 공기,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사용하는 에너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위험이 도처에서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있다(Douglas and Wildavsky, 1982; 김영치, 1998 옮김). 위험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안전(Safety)이란 사용영역에 따라 취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며 그 범위 역시 해당되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넓기 때문에 용어를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안전은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안전에 대한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상반된 개념인 위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본 독일 경제학자 울리히 벡(Urlich Beck, 1997)은 그의 저서 「위험 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에서 위험을 근대화에서 따른 부수적인 문제로 정의하며, 위험이 많을수록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벡은 위험이 갖는 특징을 첫째 위험의 보편성, 둘째 예측의 난해성, 셋째 회피해야 할 대상, 넷째 무한성, 다섯째 위험의 광범위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정의를 통해 벡은 현대사회를 객관적인 지구적 위험공동체라고 보고 있으며 위험이 사회적 부메랑 효과를 보이면서 확산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위험의 특징을 보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가 비록 경제적으로 모든 재해에 대비할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인간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물질문명이다(강영석, 2004). 전통적인 사회와 초기 현대 사회에서는 위험은 본질적이고 개인적이고 공개적이고, 명백하고 관찰 가능한 것이라 여겼으나 현대사회에서 위험은 명백하지 않고, 개인적이지도 않으며 조기에 발견되는 것은 물론 위험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다.

소비자안전은 통념상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인지되어 왔으나 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회·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다(이서래, 1993; 이기춘, 1999). 또한 안전의 개념은 위험의 예방·수습, 피해의 확산방지, 우발적·비우발적 모든 사고에 대한 안전, 잠재적 위험까지도 내포하는 개념이므로 소비자는 완전한 안전상태를 향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안전성이란 '위험하지만 그 위험이 무시될 수 있거나 또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안전이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며 그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준에 따라 안전의 수준도 달라진다(이서래, 1993; 이기춘, 1999).

2 식품안전의 개념

WTO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안전은 식품의 원료인 농수산물의 재배·수확·저장·제조(가공)를 포함하는 생산단계를 비롯하여 유통과 판매를 거쳐서 조리하고 섭취하는 소비과정을 포함하는 전과정의 식품의 안전성·건강성·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종영, 2005).

식품은 식품의 원료인 농수산물이 재배되는 순간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순간까지 전과정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그 중간과정에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 식품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식품의 원료인 농수산물이 재배되는 과정에서 가공되어 유통·판매하는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한 모든 수단으로 식품안전을 정의하고자 한다.

3. 소비자 안전추구행동

1) 소비자 안전추구행동의 개념

소비자의 안전관련 행동(Safety related action)과 관련된 개념으로 안전추구행동, 안전대처행동, 안전전략 등이 있다(이기춘·김성숙, 1999). 여기서 안전추구행동은 보다 행동 심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추구(seeking)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안전추구행동은 안전을 의식적으로 반영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해사고나 사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측면에서의 안전관련 행동이다.

2) 안전추구행동의 관련변수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을 연구한 김성숙·이기춘(1999)은 안전추구행동을 소비자가 구매 전부터 구매 후 사용에 이르는 전 소비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보탐색단계의 안전추구행동과 상품선택단계의 안전추구행동, 그리고 상품사용단계의 안전추구행동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정보탐색단계의 안전추구행동을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 자신이 수용할만한 수준과 실제적 상태의 수준 사이의 괴리를 지각하고 그 괴리를 해소하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상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상품선택단계의 안전추구행동은 소비자가 특정한 상품의 선택상황에서 안전성을 다른 속성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도로 정의하며 구체적으로 상품 선택 시 가격과 성능보다 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도로 정의를 하였다. 상품사용단계의 안전추구행동은 상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위험한 상품이나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위험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하는가로 정의되며 구체적으로 사용상 주의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안전추구행동의 관련변수 위에서 고찰한 김성숙·이기춘(1999)의 연구에서 채택한 정보탐색 단계의 안전추구행동, 상품선택단계의 안전추구행동, 상품사용단계의 안전추구행동을 동일하게 적용시켰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연구문제 1] 한미 소비자의 정보탐색단계에서의 안전추구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한미 소비자의 상품선택단계에서의 안전추구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한미 소비자의 상품사용단계에서의 안전추구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한미 소비자의 수입식품 및 주변국의 식품안전수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안전을 의식적으로 반영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해사고나 사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측면에서의 안전관련 행동이라 정의하고 안전추구행동을 정보탐색단계, 상품선택단계, 상품사용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① 정보탐색단계의 안전추구행동 :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 자신이 수용할만한 수준과 실제적 상태의 수준 사이의 괴리를 지각하고 그 괴리를 해소하려는 활동

② 상품선택단계의 안전추구행동 : 소비자가 특정한 상품의 선택상황에서 안전성을 다른 속성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도로 정의하며 구체적으로 상품 선택 시 가격과 성능보다 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도

③ 상품사용단계의 안전추구행동 : 상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위험한 상품이나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위험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하는가로 정의되며 구체적으로 사용상 주의행동으로 정의

3 측정도구

<표 1> 척도 구성

항목	관련 변수	척도구성		문항 수	조사 지역
안전 추구 행동	정보 탐색 단계	S1:유통기한 탐색 S3:판매자 문의 S5:유기농식품탐색	S2:구매방법탐색 S4:원산지탐색 S6:유전자변형식품탐색	6	한국 미국
	상품 선택 단계	C1:유통기한여유식품구매 C3:가격지불용의 C5:유기농 식품구매 C7:브랜드 식품구매	C2:올바른 구매방법 C4:국내산 식품구매 C6:유전자변형식품비구매 C8:가격지향적 구매	8	한국 미국
	상품 사용 단계	A1:조리시 위생사항 A3:조리기구 청결 세척 A5:세척시 많은 물 사용 A7:섭취시 주변청결유지 A9:보관시 적절한 방법	A2:환경호르몬고려조리/ A4:조리기구 청결 보관 A6:섭취 전 손 세척 A8:보관시 안전성 확인 A10:식품보관상태 파악	10	한국 미국
기타 문항	미국산 수입 쇠고기		구입의사 찬성이유 반대이유	3	한국
	햄·소세지 등 육류가공식품		원료산지	4	한국
	중국산 식품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가공식품 구매의사 비가공식품 구매의사	3	한국
	국가별 식품안전수준에 대한 인지		한국의 식품안전수준 중국의 식품안전수준 한국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이유	3	미국

〈표 2〉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초기 측정변수의 수	1차 측정변수의 α값	신뢰도 저하시키는 문항	신뢰도저하문항 삭제 후 최종 측정변수의 α값
정보탐색단계	6	.810	S1	.816
상품선택단계	8	.689	C8	.758
상품사용단계	10	.936	A2	.944

안전추구행동을 구성하는 하위 주요변인은 정보탐색단계 안전추구행동과 상품선택단계 안전추구행동, 상품사용단계 안전추구행동으로 구성된다. 안전추구행동의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의 단계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탐색단계, 상품선택단계, 상품사용단계의 모든 과정에서 모형의 적합도 및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보탐색단계 안전추구행동에 대한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51.217(p=.000)$, $df=2$, $GFI=0.968$, $AGFI=0.842$, $RMR=0.040$, $NFI=0.947$, $IFI=0.948$, $CFI=0.948$ 로 모형의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품선택단계 안전추구행동에 대한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31.711(p=.000)$, $df=5$, $GFI=0.984$, $AGFI=0.951$, $RMR=0.027$, $NFI=0.961$, $IFI=0.967$, $CFI=0.967$ 로 모형의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역시 기준치인 0.5를 모두 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품사용단계 안전추구행동에 대한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바람직하지 않아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A2:환경호르몬고려조리”와 “A9: 보관시 적절한 방법”을 제거하였다. 그 후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246.007(p=.000)$, $df=20$, $GFI=0.920$, $AGFI=0.856$, $RMR=0.031$, $NFI=0.915$, $IFI=0.921$, $CFI=0.921$ 로 모형의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3〉 안전추구행동 각 영역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단계	χ^2	df	GFI	AGFI	RMR	NFI
정보탐색단계	51.217(p=.000)	2	.968	.842	.040	.947
상품선택단계	31.711(p=.000)	5	.984	.951	.027	.961
상품사용단계	246.007(p=.000)	20	.920	.856	.031	.915

4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품 소비 시 안전추구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을 위해 먼저 한국어판 설문지를 구성하여 소비자학 전문가 3인에 의해 안면타당도를 검사받았으며 수정사항을 보완하였다. 최종 완성된 설문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 1명

과 미국인 교수 1명의 최종 감수를 거쳐 영문판 번역을 완료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2007년 8월 20일부터 2007년 11월 20일까지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였다. 한국은 총 50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고, 미국의 경우는 총 30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2.0과 AMOS(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한국				미국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248	49.6	성별	남자	150	50.0
	여자	252	50.4		여자	150	50.0
연령	20대	126	25.2	연령	20대	100	33.3
	30대	123	24.6		30대	100	33.3
	40대	127	25.4		40대	42	14.0
	50대	124	24.8		50대	58	19.3
학력	중졸이하	15	3.0	학력	중졸이하	14	4.7
	고졸이하	115	23.0		고졸이하	83	32.3
	대학졸이하	296	59.2		대학졸이하	163	54.3
	대학원이상	74	14.8		대학원이상	40	13.3
직업	학생	59	11.8	직업	학생	21	7.0
	전문직	46	9.2		전문직	66	22.0
	사무직	149	29.8		사무직	82	27.4
	기술직	29	5.8		기술직	14	4.7
	판매서비스직	22	4.4		판매서비스직	16	5.3
	자영업	56	11.2		자영업	1	0.3
	주부	95	19.0		주부	26	8.7
	기타	44	8.8		기타	49	16.3

IV. 연구 결과

1. 한미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

1) 정보탐색단계의 안전추구행동

정보탐색단계에서 한국과 미국 간 식품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한국 소비자 평균 3.46, 미국 소비자가 평균 3.13으로 한국 소비자들이 정보탐색단계에서 더욱 안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탐색단계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분석에 이용된 5항목 모두에 대해 한국과 미국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든 경우 한국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정보탐색단계 안전추구행동 한미 비교

항목	국가	N	평균	t-value
S2:올바른 구매방법 확인	한국	500	3.87	2.398***
	미국	300	3.72	
S3:판매자에게 문의	한국	500	3.06	4.987***
	미국	300	2.71	
S4:원산지 확인	한국	500	3.72	9.311***
	미국	300	3.04	
S5:유기농제품인지 확인	한국	500	3.40	2.947**
	미국	300	3.18	
S6:유전자변형식품인지 확인	한국	500	3.24	2.912**
	미국	300	3.02	
전체평균	한국	500	3.46	5.871***
	미국	300	3.13	

* P< .05 ** P< .01 *** P< .001

2) 상품선택단계의 안전추구행동

상품선택단계에서 한국과 미국 간 식품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한국 소비자 평균 3.69, 미국 소비자가 평균 3.39로 한국 소비자들이 상품선택단계에서도 정보탐색단계와 마찬가지로 더욱 안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선택단계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분석에 이용된 7항목 중 C2항목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항목에 대해 한국과 미국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든 경우 한국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표 6> 상품선택단계 안전추구행동 한미 비교

항목	국가	N	평균	t-value
C1:유통기한 확인	한국	500	4.38	4.880***
	미국	300	4.12	
C2:신선도 등 확인	한국	500	3.97	1.120
	미국	300	3.90	
C3:안전여부 판단	한국	500	3.84	6.098***
	미국	300	3.46	
C4:국내산 식품구매	한국	500	3.47	5.773***
	미국	300	3.09	
C5:유기농제품 구매	한국	500	3.11	6.861***
	미국	300	2.64	
C6:유전자변형식품 비구매	한국	500	3.48	4.901***
	미국	300	3.13	
C7:브랜드제품 구매	한국	500	3.60	3.555***
	미국	300	3.37	
전체평균	한국	500	3.69	7.184***
	미국	300	3.39	

* P< .05 ** P< .01 *** P< .001

3) 상품사용단계의 안전추구행동

상품사용단계에서 한국과 미국 간 식품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 7> 참조). 분석결과, 한국 소비자가 평균 3.95, 미국 소비자가 평균 4.14로서 정보탐색단계 및 상품선택단계와는 달리 상품사용단계에서는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소비자들보다 안전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사용단계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A1, A3, A7, A8, A9, A10의 6문항에서 한국과 미국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A2, A4, A5, A6 3문항은 양국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A6를 제외한 나머지 8개 항목에 있어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보다 안전추구행동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표 7> 상품사용단계 안전추구행동 한미 비교

항목	국가	N	평균	t-value
A1:조리시 위생사항	한국	500	3.82	-4.544***
	미국	300	4.05	
A3:조리기구 및 용기 청결 세척	한국	500	4.17	-2.523*
	미국	300	4.30	
A4:조리기구 및 용기 청결 보관	한국	500	4.03	-1.454
	미국	300	4.11	
A5:식품세척시 많은 물 사용	한국	500	4.27	-1.596
	미국	300	4.35	
A6:음식섭취전 손 씻기	한국	500	4.09	.717
	미국	300	4.05	
A7:음식섭취시 주변 청결유지	한국	500	3.89	-4.931***
	미국	300	4.16	
A8:음식섭취시 안전상태 확인	한국	500	3.89	-2.588**
	미국	300	4.04	
A9:적합한 방법으로 음식 보관	한국	500	3.83	-6.704***
	미국	300	4.19	
A10:정기적으로 보관식품 상태 확인	한국	500	3.58	-6.745***
	미국	300	4.00	
전체 평균	한국	500	3.95	-4.331***
	미국	300	4.14	

* P < .05 ** P < .01 *** P < .001

2 한국 소비자의 수입식품에 대한 의식과 행동

한미 FTA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수입쇠고기로 인한 광우병의 위험성을 들어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산 수입쇠고기와 가공식품,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1) 수입식품에 대한 의식

한국 소비자의 수입식품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표 8> 참조),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전체의 53.8%, 구입할 의사가 없는 소비자가 46.2%로 나타났으며 찬성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할 것이라는 이유가 6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주위 사람들이 별 탈 없이 사먹기 때문에(17.1%), 맛과 질이 좋아서(11.2%), 기타(2.2%)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이상이 없다면 굳이 안 먹을 필요는 없음', '보기항목 전부포함', '좋은 쇠고기는 한우보다 더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어서', '한우는 너무 비싸고, 솔직히 한우라고 판매하는 것 역시 가짜인 경우가 많음' 등이 있었다.

미국산 수입쇠고기 구입을 반대하는 이유에는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80.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산품을 애용해야 하므로가 6.9%, 맛과 질이 나빠서가 6.1%, 기타가 4.8%, 반미감정 때문인가 1.7%로 나타났으며, 기타에는 '검역 약속 불이행', '광우병뿐만 아니라 위생 상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국내산과 맛이 다르고 한 번도 구입해 보지 않았으므로', '쇠고기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최근 뉴스의 영향으로', '품질을 믿을 수 없어서', '호주산 수입육 구매', '환경호르몬 때문에' 등으로 나타났다.

<표 8> 한국 소비자의 수입식품에 대한 의식

항목		빈도	백분율
미국산 수입쇠고기 구입의사	네	269	53.8
	아니오	231	46.2
미국산 수입쇠고기 구입 찬성이유	맛과 질이 좋아서	30	11.2
	가격이 저렴해서	187	69.5
	주위사람들이 별 탈 없이 사먹기 때문에	46	17.1
	기타	6	2.2
미국산 수입쇠고기 구입 반대이유	맛과 질이 나빠서	14	6.1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186	80.5
	국산품을 애용해야 하므로	16	6.9
	반미감정 때문에	4	1.7
	기타	11	4.8

2) 가공식품 구매 행동

한국 소비자들은 햄이나 소세지 등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 지를 조사해 보았다(<표 9> 참조). 햄이나 소세지 등을 구입할 때 고기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정도가 3.37로 나타났으며, 햄이나 소세지를 구입할 때 원료로 사용된 고기가 국산인 경우에만 구매하는 정도가 2.85, 햄이나 소세지를 구입할 때 원료로 사용된 고기가 미국산인 경우 절대 구입하지 않는 정도가 2.76, 햄이나 소세지 등 가공식품의 원산지가 해외일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가 3.18로 나타났다.

<표 9> 한국 소비자의 가공식품 구매행동

항 목	평균
나는 햄이나 소세지를 구입할 때 고기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3.37
나는 햄이나 소세지를 구입할 때 원료로 사용된 고기가 국산인 경우만 구입한다.	2.85
나는 햄이나 소세지를 구입할 때 원료로 사용된 고기가 미국산일 경우 절대 구입하지 않는다.	2.76
나는 햄이나 소세지 등 가공식품의 원산지가 해외일 경우 식품의 안전에 불안감을 느낀다.	3.18

3. 미국 소비자가 인지하는 국가별 식품안전수준

미국의 소비자들은 한국 및 중국의 식품안전수준이 미국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두 나라 모두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품안전수준이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식품안전수준에 대해서는 23%의 응답자만이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안전하다'는 응답은 27.3%로서, '매우 안전하다'와 '안전하다'를 모두 합해도 한국의 식품안전수준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는 30%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응답을 보면, '매우 안전하다'가 1.0%에 불과하였으며, '안전하다'도 23.3%에 그쳐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수준에 대해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광우병 우려'가 44.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긴 했지만, 한국 소비자의 응답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80.5%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광우병에 대한 위험인지가 한국인에 비해 미국인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인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갖는 불신과 위험인지 수준을 미국인들은 다소 간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 국가별 식품안전수준에 대한 미국소비자의 인식

구 분	응답범주	빈도	백분율
한국의 식품안전 수준은 미국과 비교할 때 어떠한가?	매우 안전하다	7	2.3
	안전하다	75	25.0
	안전하지 않다	66	22.0
	전혀 안전하지 않다	25	8.3
	모르겠다	127	42.3
중국의 식품안전 수준은 미국과 비교할 때 어떠한가?	매우 안전하다	3	1.0
	안전하다	67	22.3
	안전하지 않다	90	30.0
	전혀 안전하지 않다	51	17.0
	모르겠다	89	29.7
한국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맛과 질이 나빠서	14	4.7
	광우병 우려	132	44.0
	국산 이용	79	26.3
	반미감정	62	20.7
	기타	13	4.3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미 양국 소비자들이 식품구매시 보이는 안전추구행동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는 물론 앞으로 더욱 본격화 될 개방시대를 맞아 국가 간 식품안전에 관련된 제반문제를 다루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안전추구행동은 정보탐색단계에서의 안전추구행동, 상품선택단계에서의 안전추구행동, 상품사용단계에서의 안전추구행동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측정을 위해 6문항, 8문항, 10문항의 척도가 구성되었다. 신뢰도 검증결과 제거시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총 3개의 문항을 삭제, 최종적으로는 정보탐색단계의 안전추구행동 5문항, 상품선택단계에서의 안전추구행동 7문항, 상품사용단계에서의 안전추구행동 9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척도의 집중타당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단계의 안전추구행동과정에 대해 한미 소비자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정보탐색단계와 상품선택단계에서는 한국의 소비자들이 안전추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품사용단계에서는 미국 소비자들의 안전추구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세부 항목들에 있어서도 한미 양국 소비자들의 안전추구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소비자들은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보다 관여도가 높고 이로 인해 정보탐색 및 상품선택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품사용단계에서는 이러한 긴장을 조금 풀어놓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미국 소비자들은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정보탐색이나 상품선택에 있어서는 안전추구행동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상품사용시에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품사용단계에서의 안전추구행동은 오랜 시간을 거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태도 및 습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소비들에 비해 상품사용에 있어 안전을 추구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이것은 또 다시 정보탐색단계 및 상품선택단계에 있어서도 소비자신뢰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안전추구행동이 상대적으로 낮게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및 중국의 식품안전수준에 대해 미국보다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은 반대로 미국 사회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형성되어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한미 소비자의 인식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소비자들은 80% 이상이 광우병의 우려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미국 소비자들은 그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44%만이 광우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한국인의 국산품애용 정신(26.3%) 또는 반미감정(20.7%)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어 국가간 인식의 격차가 자칫 식품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소비자권리의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도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